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Malgo Hyanggiropge



only by practicing virtue
can we purify our heart
and empty our mind.

09 2022

《맑고 향기롭게》는
가난한 절 길상사와
이 땅의
텅 빈 사람들에게
법정 스님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차례

1. 시절 인연
가을이 익어 가는 소리
2. 법정 스님이 주시는 선물 받아 가세요
자기야말로 자신의 주인
3. 법정 스님 따라 하기
무소의 뿔 1
4. 법정 스님 소참법문
늡음과 죽음에 대해
5. 법정 스님 흔적
두 조각상
6. 선재동자와 함께 떠나는 선지식 여행
신락보심(信樂寶心)을 얻다
7. 다실에서 / 이해인 수녀의 시
기차를 타요

《맑고 향기롭게》는 이렇게 만듭니다.

법정 스님이 쓰신 글, 써 두셨던 글, 하신 말씀, 쓰던 물건을 전합니다. 덕조 스님이 간직한 법정 스님의 미발표 원고를 세상에서 처음 신습니다. 달마다 새 글을 올려 맑고 향기롭게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법정 스님 당부를 지켜 종이를 눈곱만큼도 버리지 않는 제본, 곧 국산 아르테160그램 용지를 9번 접어서 20쪽 서첩으로 제작합니다. 화학품을 쓰지 않고, 화학 악품 코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젖고 잘 찢어지고 빨리 썩습니다. 한 달 동안 세워 놓고 보고 읽고 만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임과 뜻을 함께하는 지식을만드는지식 출판사가 제작 비용을 보탬니다. 월간 《맑고 향기롭게》는 꼭 할 말만 신고 돈을 아끼면서 환경을 지킵니다.

2022년 9월 1일 발행, 통권 331호,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1999년 6월 23일 등록, 발행 편집인 / 덕조, 기획 편집 디자인 / 지식을만드는지식, 발행처 / 맑고 향기롭게 모임, 주소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 741 4696 팩스 02 741 4698, 인쇄 / 영신사, 맑고 향기롭게 대구 모임 053 753 8883, 경남 모임 055 266 0170, 광주 모임 062 236 3129,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clean94.or.kr> 전자우편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도우려고 법정 스님이 세운 절입니다. 전화 02 3672 5945 팩스 02 3672 5947 홈페이지 <http://www.kilsangsa.or.kr> 전자우편 kilsangsa@hanmail.net



1. 시절 인연

가을이 익어 가는 소리

9월 1일(金) 맑은 뒤 흐림

일주일 만에 귀산(龜山).

해바라기가 두 송이 피었다. 반갑다. 꽃망울이 잔뜩 맺혔으니 가을내 뜰을 환히 밝혀 주겠구나. 개울가 밭에 뿌린 씨앗이 올해는 시원찮다.

윗방에 곰팡이가 슬어 군불을 잔뜩 지펴 놓았더니 방이 더워 앉아 있을 수가 없다. 아직도 마루가 시원해서 좋다.

방과 마루에 촛불과 기름등잔 해 놓고 멀찍이서 바라보는 즐거움. 이 오두막에 전등이 켜지면 어울리지 않을 것이다.

밤늦게 가을비가 올 거라는 일기예보. 미리 물을 길어다 놓았다.

어제 저녁 예불 마치고 좋은 시간 갖다.

라벤더 향기 나는 아로마 램프 켜 놓고 명상음악(Inner Landscapes)에 귀 기울이며 좌선(침상 위에서).

달님이 소리 없이 새로 바른 창문에 오시다. 풀벌레 소리에 시냇물도 숨을 죽이는가.

이 맑음과 고요를 어디서 누릴 수 있으리. 차오르는 맑은 북에 감사 감사하다.

마음 밭에 갖가지 씨앗 있어

비를 맞으면 다 싹이 트지만

삼매의 꽃은 그 모습 없나니

어찌 이루어지고 부서지고 하리

9월 30일 (月) 맑음

맑고 투명한 전형적인 가을 날씨.

내 둘레에서 음악으로 불리는 소음을 말끔히 청소하다.

며칠 전에는 인(仁)이에게 소리통을 빌려주었다. 불일암에서 듣던 파나소닉 간소한 장치. 어제는 CD 상자를 장수산방(長壽山房)으로 보냈다.

이제 나는 인공적인 소리보다는 자연의 소리가 훨씬 마음을 편하게 한다는 사실을 내 둘레로부터 실현한 것. 귀에 익은 음악은 세상 어딘가에 그대로 있을 테니 들을 만한 인연이 닿으면 듣게 될 것이다.

사실 나는 요 근래 음악 자체보다도 음악이 끝나고 난 그 후의 고요에 귀 기울이기를 즐겨 온 셈이다. 아무리 좋은 음악이라도 한참 듣고 있으면 소음이나 다를 바 없었다.

그러나 물소리며 바람 소리며, 나뭇잎 새로 스쳐 가는 마른바람 소리가 내 영혼을 투명하게 씻어 준다. 며칠 전 수류산방에 갔을 때 둘레에서 나뭇잎을 스치고 지나가는 마른바람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으려니 문득 아하, 이 소리가 바로 가을이 익어 가는 소리이구나 싶었다.

2. 법정 스님이 주시는 선물 받아 가세요

자기야말로 자신의 주인

“모든 것은 덧없다.

계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것이 부처님의 최후 유훈입니다.

너희 자신에게 의지하고 법에 의지하여 부지런히 정진하라는 것입니다.

정진하지 않으면 오염됩니다.

정진하지 않으면 때가 묻습니다.

우리 심성이라는 것은 거울과 같아서 그대로 놓아두면 흐려집니다.

그러니 시시로 닦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닦습니까?

보여야 닦지요.

그러니 마음을 잘 쓰는 것입니다.

용심用心입니다.

마음을 잘 쓰면 닦입니다.

마음을 잘못 쓰면 어지럽혀집니다.

마음 쓰는 일이 곧 세상 살아가는 일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눈부신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마음 잘못 쓰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부딪칩니다.

일과 부딪치고 물건과 부딪치고

그 부딪치는 일을 통해서 거듭거듭 자기 마음을 닦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본질적인 자기를 마음껏 펼쳐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눈이 열리고 세상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진리의 말씀》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기야말로 자신의 주인

어떤 주인이 따로 있을까?

자기를 잘 다룰 때 얻기 힘든 주인을 얻은 것이다.

자기야말로 자신의 주인이고

자기야말로 자신이 의지할 곳.

그러니 말 장수가 좋은 말을 잘 다루듯이

자기 자신을 잘 다루라.”

이와 같은 교훈이 후기 선禪 불교에 오면 마음의 문제로 변용됩니다.

그래서

“마음 밖에서 찾지 말라”

“문으로 들어온 것은 집안의 보배가 될 수 없다”

라고 강조합니다.

3. 법정 스님 따라하기

무소의 뿔 1

69 홀로 앉아 선정禪定을 버리지 말고, 모든 일에 항상 이치와 법도에 맞도록 행동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우환인지를 똑똑히 알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70 애착을 없애는 일에 게으르지 말고, 병어리도 되지 말라. 학문을 닦고 마음을 안정시켜 이치를 분명히 알며 자제自制하고 노력해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71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흙탕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72 이빨이 역세고 못짐승의 왕인 사자가 다른 짐승들을 제압하듯이, 궁벽한 곳에 거처를 마련하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73 자비와 고요와 동정과 해탈과 기쁨을 적당한 때를 따라 익히고, 모든 세상을 저버림 없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74 탐욕과 혐오와 해매임을 버리고, 속박을 끊어 목숨을 잃어도 두려워 말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75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벼를 사귀고 또한 남

에게 봉사한다. 오늘 당장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벼는 만나기 어렵다. 자신의 이익만을 아는 사람은 추하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강론

‘심불반조心不返照 간경무익看經無益’이란 말이 있다. 경전을 읽으면서 마음속으로 돌이켜 보지 않는다면 아무런 이익도 없다는 뜻이다. 소설이나 신문 기사를 읽듯이 건성으로 읽고 지나친다면 설사《대장경》을 줄줄 읽어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 한 구절 한 구절 음미하듯 독송할 때 경전은 살아서 빛을 발한다. 경전이란 거울에 일상의 자신을 비춰 봄으로써 자신의 한 존재를 뚜렷이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한집에 살지 않으면 아무리 오랫동안 사귀어온 사이라 할지라도 그의 실체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함께 여행이라도 하면서 며칠 동안 한 울 안에서 같이 지내보면 그 사람의 정체를 있는 그대로 알게 된다.

좋은 친구란 세상에 그렇게 흔하지 않다. 내 자신 또한 남에게 어떻게 비칠지 때로는 헤아려 보아야 한다. 틀에 맞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지낸다는 것은 큰 고역이 아닐 수 없다. 한평생을 “이게 아닌데 아닌데” 하면서 끌려가는 삶이 있다면 그것은 불행한 인생. 적어도 자기 인생만은 자주적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

초기 경전에는 “선우善友”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만큼 친구의 영향이 크다는 뜻일 것이다. 친구를 잘 두어 덕을 보는 일도 많

지만, 친구 때문에 한평생 말할 수 없는 피해와 고통 속에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부처님이 석가족이 살고 있는 한 마을에 머물고 있을 때, 시자인 아난다가 부처님께 이런 말씀을 드린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우리가 선량한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것은 이 길의 절반에 이른 거나 다름이 없겠습니다.”

이 길이란 구도의 길이고 열반에 이르는 길,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일 수도 있다.

아난다의 이와 같은 말에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그렇지 않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착한 벗은 이 길의 전부이니까.”

그러면서 부처님은 더 자세히 그 뜻을 말씀하신다.

“너희들은 나를 선우善友로 삼았기 때문에 늙지 않으면 안 될 몸이면서 늙음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고, 죽지 않으면 안 될 인간이면서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이와 같이 생각할 때 착한 벗을 만나 함께 지내는 것은 이 길의 전부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상응부경전》 45:2 반, 《잡이함경》 27:15 선지식)

좋은 친구를 만나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것은 큰 복이다. 유유상종類類相從, 사람은 끼리끼리 어울린다. 그 사람을 알려면 그와 어울리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 확히 알 수 있다. 친구란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는다.

우리가 흔히 겪는 일로, 친구와 함께 어디를 갔다가 그

친구의 하는 것을 보고 환멸을 느끼면서 함께 길을 떠난 것을 못내 후회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친구와 함께 여행을 해 봐야 그 친구의 정체를 알 수 있다. 이럴 바에야 혼자서 떨어져 자기 식대로 지내는 것이 훨씬 좋았을 것이라고 거듭거듭 후회하게 된다.

속물들과 함께 어울리면 내 자신도 또한 속물이 되고 만다. “의롭지 못한 것을 보고, 그릇되고 굵은 것에 사로잡힌 나쁜 벗을 멀리하라. 탐욕에 빠져 게으른 무리를 가까이 하지 말라. 조금은 외로울지라도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외로움은 자기 자신을 맑히는 일일 수도 있다.

시시껄렁한 세속적인 유희나 오락 혹은 쾌락에 빠져들지 말고 그런 일에 관심도 갖지 말라는 것. 왜냐하면 그것은 내 자신을 멍들게 하는 ‘오염’이니까. 창조적인 만남이란, 서로가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범속한 늪에서 거듭거듭 헤쳐 나오는 일이다. 서로가 잠든 영혼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켜 삶에 활기를 불어넣는 사이이다.

“물속의 고기가 그물을 찢듯이, 한번 타 버린 곳에는 다시 불이 붙지 않듯이 모든 번뇌의 매듭을 끊어 버리라”는 것. 아하, 이것은 집착이구나, 여기에는 즐거움도 별로 없고 괴로움뿐이로구나, 이것은 고기를 낚는 낚시밥이구나, 이렇게 알고 미련 없이 떨쳐 버리면서 거듭거듭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 새로운 시작을 통해 인생은 거듭거듭 소생한다.

4. 법정 스님 소참법문

늙음과 죽음에 대해

이 글은 법정 스님께서 1998년 11월 1일에 하신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법문은 어떤 책으로도 출간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늙음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도 이제 늙어 가는 모양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하는구나 싶습니다.

늙는다는 건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17세기 어느 수녀의 기도문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저로 하여금 말 많은 늙은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특히 아무 때나 무슨 일이나 한마디 하겠다고 나서는
주책 떠는 버릇이 들지 않게 하소서.

남에게 도움을 주되 참견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끝없이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떠들지 않고
곧바로 요점으로 날아가는 날개를 주소서.

내 팔과 다리 허리의 고통에 대해서는
아예 입을 막아 주소서.

내 신체의 고통은 해마다 늘어나고
그것들에 대해 위로받고 싶은 마음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한 얘기를
기꺼이 들어 줄 은혜야 어찌 바라겠습니까만
적어도 인내심을 가지고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제 기억력을 좋게 해 주십시오

감히 청할 수는 없사오나
저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어
제 기억이 다른 사람의 기억과 부딪힐 때
저도 가끔 틀릴 수 있다는 영광된 가르침을 주소서.
제 눈이 점점 어두워지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저로 하여금 뜻하지 않은 곳에서 선한 것을 보고
생각지도 않은 사람에게서
좋은 재능을 발견하는 능력을 주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그것을 선뜻 말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주소서.

위에 언급된 얘기는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속성입니다. 중언부언 요령 없이 떠벌리고, 팔다리가 쭈시네 걸리네 하소연들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굳이 남 앞에 얘기하지 않게 해 달라는 소원입니다. 우리가 지녔던 기억력이 다 밝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기억과 상충될 때 나 자신의 기억이 틀릴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하게 해 달라는 소망입니다.

며칠 전 미국에서 존 그레이라는 77세 노인이 우주 여행을 떠났습니다. 육신의 나이를 고려한다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일반 항공기도 아니고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비행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그는 무중력 상태가 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하는 것에 대한 연구 자료로 자기 자신을 선뜻 내놓은 겁니다.

이런 일에는 육신의 나이가 문제 될 수 없습니다. 일에 대한 열정과 그 기상이 문제죠. 존 그레이는 36년 전에도 우주에 한 번 다녀왔는데, 그때를 회상하며 다시 우주 비행에 나섰다는 건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것은 육

신의 나이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대개 무슨 일을 할 때 아이고 내 나이에 뭘 하겠느냐, 자녀들이 컴퓨터 배우라는데 아이고 내일모레 송장이 될 텐데 컴퓨터 배워서 뭘 하겠느냐, 스스로 이렇게 좌절합니다.

이는 인간의 무한한 능력을 육신의 나이에 집착해서 묵혀 두는 겁니다. 꼭 우주 비행이 아니더라도 비록 육신은 젊은 시절과 다르지만 살아 있기 때문에 무슨 일 이든 매달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나이 탓하며 하나둘 포기한다면 스스로 노쇠를 불러들이는 겁니다. 노쇠의 종착역은 뭘니까? 죽음이죠.

살아 있는 것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면 우선 손발의 근육이 굳어지고 무력증에 빠져요. 두뇌도 마찬가지예요. 활용하지 않으면 묵은 발처럼 잡초만 무성해집니다.

흔히 환자들한테 절대 안정을 요구하는데 일반적으로 너무 안정만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안정하다 보면 끝 없이 퇴행해 갑니다. 그러니까 늙기를 좋아하면 결국 관 속이나 흙 속에 파묻힐 때를 재촉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활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쇠퇴하고 손발을 움직이지 않으면 몸을 버터 주는 뼈가 약해집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뼈의 세포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뼈 전체가 약해져 부러진답니다.

미국 노인 아파트에서 제일 많은 게 노인들 골절상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안정 상태에서 지내고 더구나 햇볕을 많이 못 받기 때문에 층계에서 조금만 넘어지면 그냥 골절상을 입는대요.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5. 법정 스님 흔적



두 조각상

은사 스님 서재 책꽂이에는 성모마리아상과 부처님 고
생상이 나란히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참 이질적인 두 조각상입니다.

스님은 다른 종교에 대해 관대하셨습니다.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교란 가지가 무성한 한 그루의 나무와 같다.
가지로 보면 그 수가 많지만, 줄기로 보면
단 하나뿐이다.

똑같은 히말라야를 가지고

동쪽에서 보면 이렇고,

서쪽에서 보면 저렇다고 할 따름이다.”

6. 선재동자와 함께 떠나는 선지식 여행

신락보심(信樂寶心)을 얻다

선재동자는 선견 비구의 가르침을 받아 기억하고
외며 생각하고 익혀서 분명하게 결정했다.
그 법문에 깨달아 들어가고, 하늘·용·야차·건달바
무리에게 앞뒤로 에워싸여 명문국(名聞國)으로 가면서
자재주 동자를 두루 찾았다. 그때 하늘, 용, 야차,
건달바 등이 허공에서 선재에게 말했다.

“선남자여, 그 동자는 지금 물가에 있느니라.”
선재동자가 그곳으로 찾아가 동자를 보니 10천
동자들에게 에워싸인 채 모래로 장난을 치고 있었다.
선재는 그의 발에 엎드려 절을 하고
합장 공경하면서 한쪽에 서서 말했다.

“성자시여, 저는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발했으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보살도를 닦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니
원컨대 말씀해 주소서.”

자재주 동자가 말했다.

“선남자여,
나는 예전에 문수사리동자에게서 글씨와 산수와
결인(結印) 등의 법을 배워 온갖 미묘한 신통과
지혜의 법문에 들어갔다.
나는 이 법문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글씨·산수·
결인·십팔계(十八界)·십이처(十二處) 등의 법을

알았으며,
풍병·간질·조갈·귀신 들리는 병 등을 치료했다.
또 성읍·촌락·동산·누각·궁전·가옥들을
세우기도 하고,
갖가지 선약을 만들기도 하고,
논밭의 농사와 장사하는 온갖 직업을
경영하기도 하며,
취하고 버리고 나아가고 물러감에 모두 알맞게 했다.
또 중생의 모습을 잘分別해
선을 짓거나 악을 지어 착한 세상에 태어나거나
나쁜 세상에 태어날 것을 미리 알고,
성문의 법을 얻을 사람과 연각의 법을 얻을 사람과
온갖 지혜에 들어갈 사람들을 다 잘 알며,
아울러 중생이 이런 법을 배우고 증장(增長)하며 결정해
마침내 청정케 했다.
선남자여, 나는 또 보살의 계산법을 알고 있으니,
보살의 이 계산법으로
한량없는 유순의 광대한 모래 더미를 계산해
그 안에 있는 알맹이 수효를 모두 알고,
동서남북 등 시방에 있는 모든 세계의
갖가지 차별과 차례로 머물러 있음을 계산해 안다.
시방에 있는 모든 세계의 넓고 좁고 크고 작은 것이며,
그 이름과 그 가운데 있는 겁의 이름,
부처님의 이름, 법의 이름, 중생의 이름,
업의 이름, 보살의 이름, 진리의 이름을
다 분명히 안다.
나는 다만 이 온갖 오묘한 큰 신통과 지혜 광명
법문만을 알 뿐이다.
그러나 저 보살 마하살은 중생의 수효를 알고,
법의 종류와 수를 알며, 법의 차별된 수를 알고,

삼세(三世)의 수도 안다. 또 중생의 이름(名數)을 알고,
법의 이름을 알고, 여래의 수를 알고,
여래의 이름을 알고, 보살의 수를 알고,
보살의 이름을 아는 일들이야
내가 어떻게 그 공덕을 말하고, 수행을 보이겠는가.
또 내가 어떻게 그 경지를 드러내며,
뛰어난 힘을 찬탄하며, 좋아함을 말하겠는가.
그리고 도를 돕는 것(助道)을 말하며,
큰 원을 나타내며, 미묘한 행을 찬탄하며,
바라밀을 열어 보이며, 청정함을 연설하며,
뛰어난 지혜 광명을 펼 수 있겠는가.
선남자여, 여기서 남쪽으로 가면
해주(海住)라는 큰 성이 있는데,
거기 한 청신사(淸信士)가 있으니 이름이 구족(具足)이다.
그대는 그를 찾아가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도를 닦느냐고 물으라.’”

선재동자는 이 말을 듣고 모골이 송연하고 환희에
복받쳐 희유한 신락보심(信樂寶心)을 얻었으며,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하는 마음을 성취했다.
모든 부처님이 세상에 나시는 차례를 분명히 보고,
깊은 지혜와 청정한 법륜을 다 통달했으며,
모든 길에 몸을 나타내고 삼세의 평등한 경계를
잘 알 수 있었다.
다함이 없는 공덕의 바다를 내고, 큰 지혜의 자재한
광명을 놓으며, 삼세의 성에 잠긴 자물통을 열었다.
그러고는 그의 발에 엎드려 절하고 길을 떠났다.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7. 다실에서 / 이해인 수녀의 시

기차를 타요

우리 함께
기차를 타요

도시락 대신
사랑 하나 싸 들고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서로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서 길어지는
또 하나의 기차가 되어
먼 길을 가요

여름 안개가 끝난 해제철이라
다들 하산하고 절 안이 텅 빈다.
빈 뜰에 곤잘 산비둘기가 내리고
다람쥐들이 기왓장에 올라 재롱을 피운다.
여름철에 못다 한 열정을 쏟음인지,
더러는 소나기가 천둥 번개를 데리고
온 골짜기를 휘저어 놓기도 한다.
아침저녁으로 선득거려 군불을 지피고,
삼베옷은 까슬거려 벗어 놓아야 한다.
문득 앞산을 바라보면
그새 산색山色이 수척해졌다.
히허로운 바람 소리가 스쳐 간다.
-범정 스님



중앙 모임 소식 (02-741-4696)

후원 회원 가입 및 후원 방법 안내

(사)맑고 향기롭게는 우리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두루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려는 이들의 순수 시민 모임으로 100% 회원들의 후원에 힘입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회원 개개인의 형편에 따라 정기 비정기 후원, 후원 금액 결정, 후원 방법 선택(CMS, 온라인, 지로)까지 스스로 합니다. 회원으로 가입하면 법정 스님의 지혜로운 글이 담긴 알차고 소박한 월간지 <맑고 향기롭게>를 정기적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후원이 부담되는 분은 연간 최소 경비(1만 원 이상)만 후원해 주시면 월간지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후원 회원 가입은 홈페이지, 사무국 방문, 팩스, 전자 우편, 우편을 통해 가입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조리 활동

맑고 향기롭게 중앙 모임 반찬 나눔 조리 활동은 매주 목요일 20~30명의 봉사자가 모여 반찬을 조리해 결연가정 460가구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2년 여간 조리 활동이 중단되는 바람에 정기적으로 참여했던 봉사자도 줄어들어, 당분간은 목요일 하루에 반찬 1종류만 조리하고, 대체식품 1가지를 구입해 차츰 봉사자 인원이 늘어나면 예전처럼 목, 금으로 나누어 진행할 계획입니다. 멈췄던 조리 활동이 다시 시작되고 사무국 반찬 담당자도 변동되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역시 맑고 향기롭게 봉사자들의 열정은 한결 같았습니다.

지난 반찬 조리 메뉴는 7월 셋째 주 '소불고기, 짬뽕면', 7월 넷째 주 '낙지전, 양념깻잎, 참치' 8월 첫째 주 '제육볶음, 북엇국, 김' 8월 둘째 주 '김치, 오이무침, 장조림, 초코파이(길상사 후원)'였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으로 재료비와 채소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김치 또한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결연을 맺고 있는 '농가식품'에서 오른 가격보다 낮추어 납품해 주어 다행입니다. 특히 오이 등의 채소는 장 볼 때와 납품할 때 하루하루 가격 변동이 생기곤 합니다.

코로나19와 물가 상승 그리고 최근 많은 비로 인해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 더욱 고립되고 힘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며,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앙 모임에서는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결혼가정 460여 가구에 밀반찬 2가지와 김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절과 정월대보름, 부처님 오신 날에는 생필품을 나누며, 연말에는 김장김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활동은 매주 목요일 9시 20분 맑고 향기롭게 조리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급식 봉사자 자원 활동

맑고 향기롭게 중앙 모임에서는 매주 월요일 종로구 안국역 부근에 있는 서울노인복지센터 1층 '만발식당'에서 어르신을 위한 점심 급식 자원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10여 명의 봉사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봉사자들은 식탁 정리, 수저 전달, 배식, 식기 세척 등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폭염과 태풍으로 인해 가장 힘든 분들이 에너지 빈곤층이라 생각됩니다. 에너지 빈곤층이란 1970년대 영국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겨울철 거실 온도 21℃, 거실 이외의 온도 18℃를 유지하기 위해 지출하는 에너지 구매 비용이 소득의 10%를 넘는 가구를 말합니다. 즉 적절한 수준의 에너지 소비를 감당할 경제적 수준이 안 되는 가구를 말하는데, 대부분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입니다. 인제대 사회복지학 이정우 교수의 몇 년 전 인터뷰에서 "명확한 개념 설정과 이를 토대로 한 정책 수립, 현실적 변수 반영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복지 정책은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회 전반적인 구조를 바꾼다는 생각으로 기초부터 탄탄히 다져 놓지 않으면, 정권에 따라 방향성을 잃고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다면 에너지 복지 사업 종류와 예산만을 늘릴 게 아니라 '무엇을 할 것인가'부터 정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지속되는 에너지 복지 사업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빈곤층의 비율은 줄어들지 않는 현실에 서울노인복지센터를 이용하는 많은 어르신들이 만발식당에서만만큼은 무더위를 잊고 시원하게 식사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맑고 향기롭게 봉사팀과 서울노인복지센터 봉사자들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생태 사찰 가꾸기 자원 활동

우리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며 생명의 존엄을 배우고 사소한 일상생활 할지라도 생태적으로 살라는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맑고 향기롭게와 길상사는 "생태 사찰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태 사찰 가꾸기 봉사자들은 우리 꽃과 야생화 가꾸기를 비롯해 화단에 물 주기, 잡초 제거, 낙엽 정리, 거미줄 제거, 물청소 등 길상사를 안팎으로 맑고 향기로운 도량으로 보일 수 있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또한 일회용품 줄이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 길상사내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위로받고 싶은 분에게 손편지 답장을 해드립니다

길상사 경내 가장 위쪽에 있는 '법정 스님 진영각'에는 매일 많은 분들이 방문해 스님 진영에 삼배를 올리고, 소소하게 전사된 유품을 관람합니다. 잠시 틴마루에 앉아 마음을 차분히 달래기도 하고, 방명록에 저마다의 가슴속 이야기를 묵묵히 남겨 놓곤 합니다. 그리고 방명록과 더불어 소소한 고민을 적을 수 있는 '공감 엽서'와 '향기 우체통'을 배치해 두었는데, 익명으로 많은 분들의 고민과 사연이 담기고 있습

니다.

그러한 고민과 사연을 '향기 우체부' 봉사자들이 놓치지 않고 꼼꼼히 읽은 후 정성껏 답장을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향기 우체부 봉사자들은 사연을 읽고 답장을 쓰다 보니 손 편지라는 매개체가 코로나19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위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다라니 다원(지장전 전각 1층)에도 '향기 우체통'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조용히 차 한잔 마시다가 이런저런 고민이나 생각이 떠오르면 공감 엽서에 사연을 적어 향기 우체통에 넣어 두면 향기 우체부 봉사자가 손 편지 답장을 해 드릴 것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각종 SNS가 보편화면서 손 편지가 사라지고, 사람의 정이 점점 사라져 가는 언택트(untact) 시대에 비록 전문적인 상담은 아니지만, 위로받고 싶은 분들에게 온(on)택트 손 편지로 소중하고 따뜻한 위로를 서로 주고받았으면 합니다.

법정 스님 법문 기록 <꽃한테 들어라> 출간

(사)맑고 향기롭게에서 법정 스님의 육성 법문을 가려 엮은 법문 모음집 <꽃한테 들어라>를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법정 스님 12주기 추모 법회 즈음에 공개된 육성 법문 데이터 36편을 복원·복구해 정리한 오디오북 '법정 스님 108법문' 중 녹취 및 문어 정리가 마무리된 <꽃한테 들어라> <어디서 따로 찾는가?> <무엇을 보는가?> <오늘부터 산다> <나서서 베풀어라> <너를 믿는가?> <무엇하는가?> 등 13편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이 책의 인쇄 수익금은 (사)맑고 향기롭게 장학 기금으로 사용되어 우리 사회를 더 맑고 더 향기롭게 만드는 일에 쓰일 것입니다. (지식을 만드느라 지식 출판)

덕조 스님 <다시 여행을 시작하는 그대에게> 출간

맑고 향기롭게 이사장 덕조 스님의 두 번째 에세이가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아침을 여는 덕조 스님의 향기 소리>에 날마다 쓴 글과 불일암 주변의 사계절 모습, 티베트 등 여행길에서 찍은 사진을 가려 뽑았습니다.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새 아침을 열었던 그 글귀 가운데 엄선한 330여 편의 마음 맑히는 아포리즘과 눈 밝히는 40여 장의 컬러 사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김영사 출판)

맑고 향기로운 삶을 사는 일에 뜻을 함께해주세요

시민 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활동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 궁금한 점, 회원님의 변경된 정보(주소, 전화번호 등)가 있으면 본 모임 홈페이지 회원 제안 게시판에 이용하시거나 전자우편(clean94@hanmail.net)으로 보내주세요. 또한 청정한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더욱 맑고 향기롭게 가꿀 수 있는 여러 활동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9월 중앙 모임 정기 활동 안내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 활동 : 2일(금) / 오전 10시 / 세계일화실
- 책 읽기 소모임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세계일화실 ● 향기우체부 소모임 : 격주 금요일 / 오전 10시 / 세계일화실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서울노인복지센터 급식 자원 활동 : 매주 월요일 / 오전 10시 / 서울노인복지센터 1층 만발식당 ● 반찬 나눔 활동 : 매주 목요일 / 오전 9시 30분 / 맑고 향기롭게 조리장 ● 뜨개질 소모임 : 매주 목요일 / 오후 1시 / 세계일화실 / 비대면 활동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생태 사찰 가꾸기 모임 : 매주 월, 목요일 / 길상사 경내

● 정기재정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 스님 학교 후원

* 코로나19로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니 중앙 사무국 문의 후 참여해 주세요.

대구 모임 소식 (053-753-8883)

● 봉사 활동

- 홀로 어르신 밑반찬 정기 나눔 : 매주 수요일 / 음식 조리 활동(10시~13시), 배달 활동(19시~21시)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 요양 시설) 정기 방문 : 매월 셋째 화요일 /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 / 목욕, 식사 도움, 빨래 정리, 말벗 ● 청도 운문사 정기 방문 : 매월 둘째 주 금요일 /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집결, 출발 / 공양 준비 및 공양재료 다듬기, 청소 등

● 모임

- 시민서로배움터 : 대구 모임 3층 비정기 강좌 개최 ● 법정 스님 책 읽기 모임 :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저녁 7시

● 지원 사업

- 햇살청소년 지원 사업(가정 폭력, 성폭력 피해 가정 정서 지원 프로그램)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 월간 소식지 발송 : 매월 초 ● 정기 봉사 활동 및 사옥 청소 봉사자 수시 모집

경남 모임 소식 (055-266-0170)

● 봉사 활동

- 보현행원(무료 노인 요양원) :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 봉사 / 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 사파복지회관 무료 급식소 :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에 점심 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 /

오전 10시~오후 2시 ● 해 뜨는 교실(봉림청소년문화의집) : 저소득층 초중등학생 공부방에 학습 지도 및 간식 지원 ● 천연 화장품 만들기 모임 : 매월 첫째, 둘째 금요일 진행 / 오후 1시 30분 ● 친환경 수세미 나누기 : 매월 둘째 화요일 모임 및 친환경 수세미 판매

● 모임

- 선 수련 모임 : 매주 금요일 / 저녁 7시 / 열린 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 매월 넷째 수요일 / 오전 11시

● 후원 활동

- 결연 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밑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 / 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 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 월간 소식지 발송 : 매월 초 ● 정기 봉사 활동 및 사옥 청소 봉사자 수시 모집

광주 모임 소식 (062-236-3129)

● 봉사 활동

- 점심 공양 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 고려자, 저소득,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천 원의 밥상(점심) 운영 / 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 김치 담그기 : 매주 토요일 진행 ● 자비의 도시락 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 저소득 가정에 도시락 나눔 ● 장터 및 바자회, 쓰레기 줍기 캠페인 : 비정기적으로 회원 및 봉사자들 참여 진행

● 모임

- 독서 모임 : 법정 스님 저서 읽고 회원들과 함께 교류 ● 노래 모임 : 건전가요, 명곡 노래 교실 ● 천연 화장품 만들기 : 천연 세숫비누, 빨랫비누, 천연 화장품 만들기

● 후원 활동

- 장학 사업 :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 학비 지원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 월간 소식지 발송 : 매월 초 ● 정기 후원자 및 자원 활동가 수시 모집

* 코로나19로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니, 각 지부 사무국에 문의.

가난한 절 길상사 소식

길상사 (02)3672-5945/전송:(02)3672-5947

● 천수다라니 33독 3년 기도

- 일시 : 9월 3일(토) 오후 6시~8시 30분 ● 장소 : 극락전
- 한 가지 소원의 성취를 일념으로 발원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

송하면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 원하는 바가 속속성취되는 영험한 기도입니다. ● 개인 축원입니다. ●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 기도는 극락전, 설법전 및 극락전 마당 천막에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길상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동시에 중계되며 개인별 발원 내용을 자막으로 올려 드립니다.

● 추석 합동차례

선망조상님의 음덕을 기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 공양을 올리는 추석 합동차례가 봉행됩니다.

- 일시 : 2022년 9월 10일(토)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위패번호 1번~700번) / 설법전(위패번호 701번~) ● 동참금 : 5만 원(영가 10위까지), 추가 1위당 5천 원

※ 추석 당일 오전 8시부터 다음 날 오후 3시 30분까지 참배 가능.

● 추계관음기도

- 입재 8월 13일(토) ~ 회향 11월 7일(월) /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동참금 : 5만 원

● 불교대학 2학기 수강생 모집

- 개강 : 9월 13일(화) ● 자격 : 불교 기초 입문 교육 수료자, 조계종 신도증 소지자 ● 수업 기간 : 9월 13일 ~ 12월 6일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 ~ 3시 40분

● 길상사 참선 템플라이프

- 일시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다라니기도, 초하루 등 사중 행사 시에는 변동됨) ● 장소 : 설법전 ● 참가비 : 1인 1만 원 / 정원 20명

● 9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 기도

기도명 / 법회	날짜	시간	장소
다라니기도	9월 3일	오후 6시 ~ 8시 30분	극락전
추석 합동차례	9월 10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보름기도	9월 10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지장재일	9월 13일	오전 9시 50분	지장전
관음재일	9월 19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초하루기도	9월 26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극락전기도	매일	새벽 4시 오전 9시 50분 오후 6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일	새벽 4시 40분 오전 9시 50분 오후 6시	지장전

(사)맑고 향기롭게 후원 안내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 모임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본 모임 홈페이지에서 후원 회원 가입 후 CMS 후원을 신청하거나,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하여 서면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 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에는 신청한 은행에 직접 가야 합니다.

지로 후원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소식지와 함께 배송되는 지로 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지로 번호 7618372)

일시 후원 자신의 뜻깊은 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이 부담되는 경우, 본 모임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지를 받아 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직접 본 모임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정기 후원 · 회원 가입

(사)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후원 회원 등록하거나 (사)맑고 향기롭게 사무국에 방문하여 가입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 자동이체 후원 계좌

중앙 모임 02-741-4696

일반 사업 후원 계좌: 국민 817-01-0253-129

KEB하나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결식 이웃 후원 계좌: 국민 817-01-0255-458

신한 100-013-787953

장학금 후원 계좌: KEB하나 220-890015-10204

대구 모임 053-753-8883 후원 계좌: 대구 002-05-016277-8

경남 모임 055-266-0170 후원 계좌: 농협 932-01-002933

광주 모임 062-236-3129 후원 계좌: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는 종교 법인으로 인가되어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